

# 조선시대 喪禮行列服飾에 나타난 상징성에 관한 연구

최 해 율 · 이 순 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Meanings of Funeral Ceremony Costumes in Chosun Dynasty

Hai-Yaul Choi · Soon-Won Lee\*

99' Ph.D candidate in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in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discuss the pattern of Confucian funeral ceremony and its costumes in Chosun dynasty, thereby exploring the ideas and symbolic meanings expressed on them.

1. Male's official mourning dresses were composed of Choieui symbolizing sadness, Choisang(최상), Dukun(頭巾), Sangkwan(喪冠), Sujil(首絛), Yoil(腰絛), Kyodai(絞帶)and mourning stick(喪杖). Female's official mourning dresses consisted of Daesoojangkon(大袖長裙) and Kaedoo(蓋頭), which were of simple kinds as compared to those of males.

Duration of wearing mourning dresses was the longest to the death of father, husband and eldest son. The forms of mourning dresses were one and the same irrespective of the noble and the mean, which expressed the sameness of the sorrow full of losing blood relative. Symbol expressed on funeral ceremony costumes were something like "eldestson-oriented", "male-centered", "distinction of the sexes" and "principle of Yin and Yang" to reinforce vitality to the costumes.

2. In the other funeral ceremony costumes in a royal family were those Euijangsu(儀仗手) in red and blue colors, Yeosakon(輦士軍) in purple and white colors, Bandsman in Danryung(團領) and Guards in Kukonbok(具軍服), Changeui(擎衣)and Hoeui(號衣)with five colors, while the generally of people wore white dress in the ceremony. Hoeui with five colors symbolized the principle of Yin and Yang; costumes of military uniforms, the dignity of the royal family; white dresses, grife, symbolizing the dignity of a royal family and Confucian sorrow as well.

3. Unlike the mourning dresses, there were great differences relative to socio-economic status in funeral goods for decoration, Soyeo(小輦)and Daeyeo(大輦). Among the goods, the instrument to drive out evil spiritess symbolized shamanism; the distinction of Soyeo and Daeyeo, separation of body and soul;

the sculpture of the Lord of Hades and messenger, philosophy of Buddhistic netherworld: the engraving of blue and yellow dragons in bier and Juksanma(竹散馬), the principles of Yin and Yang; elaborate burial accessories, realistic viewpoint of the hereafter.

Key Word : Chosun, Funeral Ceremony Costumes, mourning dresses(喪服), funeral goods(儀物), symbolic meanings

## I. 서론

喪禮는 인간이 거치는 마지막 通過儀禮의 의미를 지니며, 크게 망자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표현과, 망자를 禮送하는 산자의 恭敬의 예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집단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조선의 가부장 중심의 사회체제는 주자성리학으로써 기본을 이루고,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 중 하나가 喪禮이다. 따라서 葬送儀禮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喪禮行列의 복식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의 유교(性理學)사상이 상례복식에 끼친 영향과, 凶禮 服飾文化에 어떠한 사상과 상징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때 전반적인 喪葬禮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 王家와 士大夫의 상례문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상례행렬을 이루기 위한 과정까지의 복식과 의물을 고찰하기로 한다.

## II. 喪禮服飾과 喪禮儀物의 象徵性

### 1. 喪禮服飾

#### (1) 염습단계

남자가 역복의 차림으로 冠과 上服을 벗고 深衣나 直領을 비둘기게 입으며, 머리를 풀고 맨발(徒跣)을 하는 것은 평소에는 행하지 못하는 천하고 흉한 모습이니,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생자의 당

황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흠어진 차림은 婦인의 경우도 같으나 깃을 당겨 입지는 얇아 노출을 피하고 남녀의 유별을 나타내고 있다.

소렴후의 복은 슬프고 죄스러움을 나타냄으로써 다소 의례복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녀 모두 팔발, 면, 복상투를 행함으로써 잠시 흠어진 머리를 수습하고, 한편 남자는 한쪽 어깨를 벗어서 袒을 행하니 이러한 노출은 죄인의 모습으로서 心中의 비통함과 죄의식을 표현한 것이라 보여진다. 단 이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 의도적인 행동의 결과로서 儀禮服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父喪과 母喪을 각각 左袒右袒으로 구별하는 것, 부인은 몸을 노출하는 袒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남녀의 유별을 보인다.

#### (2) 발인단계

이어지는 葬送의 예를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깊은 심리적 애痛的 상태를 드러내어 보여야 하며, 그러므로 과장된 모습과 隱喻的인 상징물이 의례복속에 다수 표현된다.

#### 1) 喪服의 形態

남자상복의 대표적 형태인 緇의에 있어 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緇, 負版, 벽령(適)으로 이루어진 三物이다. 최란 '心中의 슬픔을 억누르는 쇠붙이'<sup>1)</sup>의 뜻으로, 심장에 해당하는 왼가슴에 붙인다. 부판은 '슬픔을 등에 지는 것'으로서 등의 중앙에 달고, 벽령은 大功 이하의 옷에는 없으니 服의

1) 한국문화재보호협회, 『한국의 복식』, 1982, p.246 참조

무거움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앞, 뒤, 좌우의 쏘 몸에 모두 슬픔의 상징물이 붙는 것은 효자의 비애가 無所不在함을 나타낸 것이라 한다.<sup>2)</sup>

또한 속에 입는 中衣에도 상징물을 부착하는 것은 슬픔을 덧입는 결과로서 悲哀의 加重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최상은 모두 7폭으로 전 3폭, 후 4폭으로 갈라지는데 『상복기소』에 이르길 이는 吉凶을 음양으로 구별하는 뜻을 가진다고 한다.

한편 喪冠은 武, 纒의 재료가 같고, 여기에 三梁을 잡되 大功 이상은 우측, 小功 이하는 좌측으로 넘기는데, 좌측을 보다 길한 것으로 여김을 알 수 있다. 이는 東洋의 陰陽체계에서 좌측은 陽, 男, 우측은 陰, 女로 구분하고 있는 것에서 파생된 듯 하다.

수질은 머리에 두르는 테로서, 질이란 孝子에게 충실한 마음(實)이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한다.<sup>3)</sup> 이때 참쇠 수질은 둘레가 9촌이며, 가벼운 복일수록 5분의 1씩 줄어드는데, 음양사상에서 九란 숫자는 陽數중 가장 큰 숫자로서 최대의 陽氣를 가진 것으로,<sup>4)</sup> 머리를 중시함과 동시에 최대의 양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교대는 革帶 대신, 요질은 大帶 대신으로 쓰였는데 그 가닥의 끝을 풀어헤친 것은 복이 가벼운 자들에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는 곧 중한 喪을 나타내는 표시라 하겠다.

杖은 애통함을 표현하여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 할 수 있다. 苴杖(竹杖)의 모양이 둥글어 하늘을 나타내기 때문에 父喪에 쓴 것이라 하며 마디가 있는 것은 悲哀의 심정을 나타낸다. 반면 削杖은 오동나무로서 색이 밝고 上圓下方형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제최인 母喪에 짙는 것으로 다소 빛깔이 밝은 것을 써서 부친상과의 구분을 두는 것이다. 이때 지팡이를 짚으면 상당히 구부린 자세로 걷게 되는데 슬픔

을 나타내기 위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보여진다.

여자의 경우는 상하가 連續된 大袖長裙을 입고 상관의 착용없이 수질만 착용하여 남자의 상복보다 간단한 구성을 보이는데, 좌를 행할 때 중한 喪일수록 비녀의 길이가 짧아져 보다 흐트러진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여기에 개두로써 몸을 가림은 삼가는 마음을 표시한 것으로 조선의 유교적 사상의 일부로 보인다.

## 2) 착용관계

『사례편람』에 나타난 本宗五服의 도판을 참고하면 상복의 착용관계가 확실히 드러난다.

첫째, 그 輕重은 상주(본인)를 중심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벼워진다.

둘째로, 오른편의 兄弟(不杖葬), 從兄弟(대공), 再從兄弟(소공)방향으로 멀어질수록 복이 가벼워지며, 왼편의 처가 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셋째로, 長子에 대한 복이 참쇠 삼년이고, 오히려 서자보다 제사를 치르는 養子에 대한 복이 嫡子와 같으니 장자를 중시함으로써 조상에 대한 제사를 다하기 위함을 뜻한다.

넷째, 夫喪이 삼년이나 妻喪은 기년으로 하고, 妾에 대한 복(제최장기)보다 오히려 長子에 대한 복(참쇠삼년)이 무거우니 이는 곧 重男輕女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듯 유교의 喪服은 人倫에서 우리나라는 애통한 도리를 드러내되, 그 기본은 父權中心의 親族의 결속 강화에 두고 있다. 따라서 여인의 복의 형태와 바꾸어 입는 절차가 남자보다 간단하며, 內喪에 대한 服이 보다 가볍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동양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陰陽思想이 그 구성원리에 나타나 天地의 이치를 服 안에 담으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2) 『儀禮注疏』 喪服記.

3) 同書. p.204

4) 『韓國文化상징사전』 2. 동아출판. 1992. p.479

## 2. 의장수 복식

일반 사가의 발인행렬에서는 방상씨를 제외하고는 담꾼들의 복장이 거의 素色衣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국장에서는 喪服 외에 護衛軍官, 嚮士軍, 儀仗手의 의복에서 有色衣가 상당량 착용되는데, 국장행렬이 흥례의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용을 나타내기 위하여 嘉禮노부에 사용되는 의장을 거의 유사하게 포함하고 있다.

청의는 옆트임이 있는 짧은 두루마기형인 것으로 보여진다.<sup>5)</sup> 홍의는 왕가행렬의 의장수복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흔히 홍건 또는 붉은 전립(皮帽子)과 함께 착용된다. 한편 白衣는 대여나 소여 등의 凶儀物을

喪의 주인공인 大行王과 가깝게 관계되는 고명, 시책, 혼백요어를 멘 여사군의 복색에 사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흥의물을 끄는 자들의 복색인 소색은 저승색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중심부의 大衆軍, 御輦軍의 경우 백건, 백의 외에 백학창, 백행등을 덧입어 흥례 나름대로의 공경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호위군관의 복식 중 소속을 표시하는 소매없는 호의는 靑, 白, 黑, 紅, 黃의 오방색을 사용하여 군관의 방위를 나타내고, 동시에 각각 木, 火, 土, 金, 水를 상징하여 陰陽五行의 우주관을 드러내고 있다.<sup>8)</sup>

이를 간단히 나타내면 음양사상, 애통한 심정의 표현, 왕가의 위용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 儒敎의 喪服에 표현된 象徴的 意味의 분류

사 상	형 태 와 구 성
家父長중심 (혈족강화)	父喪, 夫喪에 대한 참외삼년. 父, 己, 子가 상복구성의 한 단위를 이룸.
長子중심 (조상숭배)	養子와 長子에 대한 참외삼년. 승중의 법칙.
男女有別 (重男輕女)	母喪(제외삼년), 妻喪(제외기년) 여자상복의 간단한 형태. 개두, 요질중시. 저장(天)과 삭장(地).
陰陽思想	좌단우단(父, 母). 최상(前三, 後四). 수질(九寸, 五分の 一 단위). 저장(父)와 삭장(母)
儒敎의 도리 (애통의 표현)	易服(피발, 도선) 小斂후의 복(좌단우단). 최, 부관, 벽령, 저마포, 거친밀단(죄의). 수질(質) 요질(斂絰). 저장과 삭장

메고 가는 자들의 복식으로, 실제 발인반차도에서는 황색계통으로 채색되어 있어 곧 거친 麻布로 만든 素色衣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혼백요어, 시책요어 등을 멘 여사군은 紫衣와 紫巾을 착용한다.

靑衣, 紅衣는 그 색이 陽色으로 惡鬼를 쫓는 것이며<sup>6)</sup>, 紫色의 복은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래 왕가 또는 높은 신분의 상징으로 쓰여졌다.<sup>7)</sup> 따라서 國

## 3. 喪禮儀物

### (1) 염습단계

시신은 먼저 향탕으로 씻겨지는데, 악취를 없애고 부정한 것을 쫓는다<sup>9)</sup>는 벽사의 의미로서 이승의 오염을 씻고 몸을 정결히 하는 것이다.

飯습은 원래 음식의 道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는

5) 白芡子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4. p.161

6) 鄭時和 『精神文化』 11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pp.142-143 참조.

7) 岾圭和. 『服飾美學』 수학사. 1982. p.151 참조

8) 白 芡子. 전계서. p.223 참조

9) <한국 상장례>. 전계서. p.149

지승길의 노갯돈과 식량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다. 궁중에서 眞珠를 쓰는 것은 이를 新奇로 생각하여 사자의 입에 물리면 시신이 썩지 않는다는 고대 풍속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私家에서 쓰이는 無空珠 역시 흙없고 순결한 구슬로서 한, 중, 일 공통으로 '구슬'이 가지는 벽사와 呪物의 의미를 뜻하며,<sup>10)</sup> 대신 사용되는 조개는 貨幣와 再生力의 상징이어서 주술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편 식량인 쌀은 역시 벽사와 재생의 의미를 가진 버드나무 수저로 뜬다.

棺의 구조에서 그 명칭이 각각 地板, 天板, 四方板인 것은 世界의 모습을 본딴 것으로 棺을 시신의 세계, 즉 小宇宙로서 생각하였음을 나타낸다. 궁중관의 네 면에 紅綾을 붙이는 것은 벽사의 의미<sup>11)</sup>로서 붉은 색의 陽氣를 빌어 陰鬼를 쫓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 안에는 칠성판을 얹어 시신을 안치한다. 이때 여기에 北斗七星의 모양으로 일곱개의 구멍을 뚫는데, 『芝峰類說』에 이르길 喪禮에 쓰는 칠성판은 邪鬼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方相氏 또는 무덤 앞에 세우는 石像(石奴)와 같은 것이라 하였다.<sup>12)</sup>

魂帛은 死者의 魂이 깃들어 의지하는 곳이다. 이때 흰 비단과 흰 종이를 쓰는데, 특히 흰 종이는 巫俗에서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신령한 매개물로 여겨지고 있다. 혼백을 묶을 때 사용하는 同心結은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 매듭이다. 즉 혼백에 담긴 영혼이 산자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데,<sup>13)</sup> 이는 죽은자를 조상으로서 경외함과 동시에 그 영혼을 두려워함을 뜻하며 儒敎의 儀禮와 巫俗의 信仰의 복합된 모습을 보인다.

銘旌이란 죽은 자를 구별하는 수단이다. 깃대에 龍鳳頭를 다는 것은 龍鳳의 신령한 정기와 권위를 빌리기 위한 것인데, 궁중의 것은 금물을 칠한 이두 조각을 사용한다. 이는 궁중의 유교적 사상으로 인해 이무기를 큰 뜻을 품은 古한 것으로 인식한 반면 일반에서는 凶惡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긴 것<sup>14)</sup>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2) 발인단계

선두에 서는 방상씨는 철저히 주술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假面에는 황금의 네 눈이 달려 도깨비와 상통하는 모습인데, 여기에 귀거리(耳炬里)까지 착용한다. 이렇듯 괴기하고 비정상적인 것은 벽사의 능력이 있어 雜鬼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다.<sup>15)</sup> 또한 저승을 나타내는 검은색과 벽사를 위한 붉은색의 의상을 입는 것, 방패와 삼지창으로 허공을 찌르는 행위, 요령을 드는 것도 잡귀를 쫓기 위한 상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망자에게 원한을 가진 귀신을 몰아내어 저승길을 닦는 자들이다.

궁중의 방상은 4개의 눈에 곰껍질(熊皮)을 들렀고 수레를 타는 반면, 사가의 방상은 4개, 또는 2개의 눈에, 보통 검은 개의 꺾질(黑狗皮)을 두르고 도보로 걷는다. 여기에서 곰이란 시베리아 문화의 上, 大, 神, 즉 왕권의 수호와 神聖을 상징하는 것<sup>16)</sup>이며, 黑狗 또한 저승의 안내자 또는 護身의 의미를 지닌다. 방상씨용 수레의 유무, 눈의 갯수와 방상씨의 갯수로써 王家와 私家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그 다음을 따르는 功布<sup>17)</sup>는 喪輿의 길잡이

10) 『한국문화상징사전』 1. 동아출판. 1992. p.74

11) 『한국문화상징사전』 2. 전계서. p.595.

12) 『한국상장례』 전계서. p.148

13) 『한국문화상징사전』 2. 전계서. p.199

14) 『한국문화상징사전』 2. 전계서. p.579 참조

15) 『한국문화상징사전』 1. p.176

16) 『한국문화상징사전』 1. 전계서. p.64

17) 궁중에서는 공포의 역할을 우보가 대신한다.

노릇 뿐 아니라, 관의 먼지를 털는 깃대의 의미도 가진다. 그러므로 공포와 우보는 즉 사자의 시신을 안전하고 정결히 모시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죽은 자를 애도하는 글이나 시를 적은 輓章에는 끝에 글쓴이의 本官과 姓名을 쓰고 마지막에 哭再拜라 적었는데, 亡者에 대한 生者の 염원과 아낌이 극진함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8)</sup> 여기에 궁중 만장에 상하로 그린 水波連과 覆連葉이 再生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문양인 점에서 볼 때, 만장은 來世에 대한 산자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요여(영여)는 망자의 영혼이 타고 가는 임시집의 의미를 지니며, 그 형태 또한 邸宅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국장의 요여는 水波蓮의 문양을 그려 재생을 기원한다.

肩輿란 좁은 길에서 임시로 관을 옮겨 모시는 기구이기 때문에 실용성이 우선이나, 이는 곧 상여가 巨大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신분의 차이와 경제력의 표현하는 의물이기도 하다.

궁중의 大輿를 볼 때, 여기에 씌우는 지붕에는 붉은 불문(亞紋)과 연꽃봉우리의 조각을 올리니 이는 각각 왕가의 善德과 再生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다음으로 정황색의 비단에 평문을 그린 걸개장식(振容)을 볼 때 『예기』에 이르길 君은 사용하나 '大夫는 진용을 쓰지 않는다'<sup>19)</sup>라 하였으니 이는 王家의 영광과 위용이며, 流蘇의 장식은 防疫의 의미를 지닌 매듭이자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궁중 대여는 勢道家였던 안동 김씨와 같은 사대부의 상여와도 비교할수 없는 규모로서, 확연한 신분차와 위엄을 나타내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신분높은 사대부의 상여를 표현하여 '流蘇寶帳'이라 하였는데,<sup>20)</sup> 보장은 차일의 일종이다. 현존하

는 사대부의 상여는 용마루의 선후에 靑龍과 黃龍 조각을 하고, 그 중앙에 獅子를 탄 동방삭의 조각을 얹었다. 靑龍이 앞에 있으면 亡인이 남자이며, 黃龍이 앞에 있으면 여자임을 알리는 것이라 하니,<sup>21)</sup> 곧 황룡과 청룡은 각기 陰陽의 상징이라 할 것이다. 또한 동방삭은 방자를 저승으로 안내한다는 의미를 담는다고 한다.

嚳扇이란 대여의 장식인 부채 종류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자, 祭具로서 액귀를 날려보내는 벽사의 기능으로도 쓰였던 것이었다.<sup>22)</sup> 조선의 상례에서 國王은 黼, 黻, 雲紋 3종 모두를 사용한 반면, 大夫는 도끼를 뿜 불과 雲을, 士는 보, 불을 제외한 雲紋의 삼선만을 사용하였다. 이 문양들은 모두 붉은 紫色으로 그려져 액귀를 쫓는 구실을 하고, 가장자리에 모두 운문을 올림은 瑞氣를 더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明器와 服玩은 副葬品에 속하는 것이다. 명기의 품목은 생활용기 외에 악기, 무기, 車馬, 사자를 봉양하던 인물의 人形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4품 이상은 30事, 5품 이상은 20事, 서민은 15事로 신분에 따라 수가 달라서 現世와 유사한 來世觀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실제와 똑같은 인형을 명기로 쓰는 것은 순장과 같으니 어질지 못하고, 生者の 그릇을 명기로 쓰는 것 또한 殉과 같아 도리가 아니라<sup>23)</sup> 하니, 유교의 人本主義 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복과 완구를 뜻하는 服玩은 늘상 아끼던 의복과 물건을 축소한 것으로, 역시 저승으로 지니고 가기 위한 것이다. 국왕과 사대부 모두 신분상징을 위한 복완을 가지게 되니 역시 생전에 쓰던 것은 내세에도 유효하게 쓰인다는 현세적 내세관을 반영한 것이다.

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 7권. '輓詞' 참조.

19) 『禮記』 제 22편. 喪大記.

20) 정철. 『장진주사』 中.

21) 『한국상장례』 전계서. p.106.

22) 『한국문화상징사전』 1. 전계서. p.367 참조

23) 『禮記』 檀弓 下.

마지막으로, 국장례용으로 쓰이는 竹散馬類는 거대한 말의 모양으로, 말이 지니는 의미는 八卦 중 乾卦, 즉 하늘의 상징동물에 해당하는 것이며 왕권 수호와 함께 음양사상에서는 강한 陽性을 지녀 악귀를 쫓는 벽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sup>24)</sup> 단 『김수근신종복』의 기록에 ‘木馬軍’의 항목이 있고, 『星湖僊說』에 장사를 지내고 반혼할 때 鞍馬 또는 散馬를 앞세우는데 이는 貴官이 가마를 타는 규례라 하였으니, 사대부의 경우에도 국장과 같은 이유로 木馬 종류를 행렬에 참가시킨 것을 짐작할 수 있다.<sup>25)</sup>

믿음을 나타낸 것이며, 다음으로는 靈魂과 그 附屬物이 뒤따르는데, 사자의 성명을 앞세워 신분을 밝힌다. 다음에 서는 길잡이, 대여, 삼선 등은 육신을 위한 부분이다. 마지막 부분에는 상주를 위시한 男女 哭步者와 賓客, 즉 生者가 뒤따르며 시신의 뒤에서 망자를 모시는 입장에 서게 된다.

## 2. 國葬의 행렬구조

국장의 행렬은 사가의 행렬과는 그 배치가 달라

<표 2> 國葬과 士大夫葬의 상례의례에 나타나는 상징성

상징성	國葬의 儀物	士大夫葬의 儀物
呪術과 벽사(巫俗)	향방. 紅綾(棺). 칠성관. 方相氏(4명). 삼선	향방. 칠성관. 방상씨(2명). 사자를 탄 동방삭(상여). 삼선
人本主義와 공경(儒敎)	소나무 관재(시신 보호). 우보(길잡이).	소나무 관재(시신 보호). 功布(길잡이)
저승관(佛敎)	연꽃의 再生力:상여, 만장(覆蓮葉, 水波蓮)	연꽃의 再生力:상여, 연꽃문양(만장)
陰陽思想	竹散魔類(陽氣)	木馬類(陽氣) 先後 請黃龍頭(상여)
靈肉分離 二元論	魂帛/棺. 靈輿/大輿.	혼백/관. 영여/상여.
현실적 來世觀	반함. 銘旌. 만장. 명기와 복완(冕服)	반함. 명정. 만장. 명기와 복완(公服, 鹵衫)
婚禮와의 연관	폐백(현혼). 吉儀仗류	폐백(현혼)
신분의 차이(王家的 권위)	보불문(삼선). 泥金篆字(명정). 곰가죽과 수레(방상). 우보. 고명/애책/책보 요여. 죽산마류. 吉儀仗류. 진용(상여)	

## III. 喪禮行列構造의 특성

### 1. 士大夫의 행렬구조

『四禮便覽』, 『家禮輯覽』 등에 의하면, 맨 앞에 방상씨가 서고, 다음으로 女僕, 侍者, 명기요여, 명정, 요여(靈車), 만장, 공포, 대여와 삼선, 주인이하의 곡보자, 尊長, 無服親, 賓客의 순서이다.

괴기한 차림의 방상이 맨 앞에 선 것은 呪術의 인

진다. 예를 들면 선두에 있는 것은 方相氏가 아닌 護從官인데, 행렬이 방대하여 방상씨가 선두에서 면 靈輿와 大輿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여는 4番 모양으로 다꾼이 줄을 잡고 늘어지게 되는데 『禮記』雜記 下에 이르길 ‘靈輿를 바르게 하는 줄을 五百人이 잡고, 네 줄로 서서 모두 銜枚한다.’라 하였다. 여기의 함매란 영구를 끝매 입에 물려서 정숙을 꾀하는 것으로, 국장의 엄숙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선두의 호종관은 직급에

24) 『한국문화상징사전』 1. 전개서. p.258-259

25) 李翥, 『星湖僊說』 제 5권. 萬物門. -坐馬



철저히 따르는 상복에 비하여 보다 복합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죽은 이를 꾸미기 위한 의물의 경우, 규모에 상당한 신분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곧 現世의 來世觀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魂과 肉身을 따로 생각하는 二元論, 陰陽思想, 儒敎 외에 佛敎식의 저승관, 巫俗信仰에 의한 주술적 의미가 함께 표현되는데, 이는 喪禮文化라는 것이 어느 한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오랜 축적의 결과임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즉 산자가 입는 喪服은 거의 변형을 거치지 않은 유교의 정제된 형식이라면, 죽은 자를 보내는 儀物은 유교를 기본으로 하여 불교와 샤머니즘, 특유의 영혼관과 내세관을 나타내는 유교의 변형된 형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국내문헌〉

- 『숙종국장도감도청의궤』 규장각 장서
- 『영조국장도감도청의궤』 규장각 장서
- 『정조국장도감의궤』 규장각 장서
- 『철종대왕국장도감의궤』 규장각 장서
- 李수광, 『芝峰類說』 규장각 장서
- 金長生, 『喪禮備要』 규장각 장서
- 李緯, 『四禮便覽』
- (국역) 『星湖僿說』 II- 萬物門, 민족문화추진회, 1977.
- 『세종장헌대왕실록』 20, 2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3
- 『國朝五禮儀』 I-V, 법제처, 1982
- 『한국민속대관』 I,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 『한국 상장례-영원한 만남』 국립민속박물관, 미진사, 1990
- 이선재, 『儒敎思想과 儀禮服』 아세아문화사, 1992.
- 백영자,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4.
- 임재해, 『전통상례』 대원사, 1990
- 김두환, 『五服制度의 연구』 震檀학보 권 5, 1936
- 趙又玄, 『조선시대 喪服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김정진, 『조선시대 國葬圖鑑儀軌의 發軔班次圖에 나타난 儀禮服飾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金東奎 譯, 『陰陽五行의 原理』 民族文化社.
- 金용직 編, 『象徴』 문학과 지성사, 1988
- 『한국문화 상징사전』 I, II, 동아일보, 199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9, 11, 1988.
- 은양민속박물관, 『安東金氏墳墓發掘調査報告書』 은양민속박물관학술연구실, 1989
- 鄭時和 『精神文化』 11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 申義澈 『常禮要覽』 보경문화사, 1990.
- A.V.Gennep, 전경수 역, 『通過儀禮』 을유문화사, 1985

### 〈중국문헌〉

- 『禮記』, 『儀禮』, 『朱子家禮』
- 孫言台 撰, 『周禮正義』
- 鄭玄注, 賈公彥疏, 『儀禮注疏』 上海古籍出版社.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上海:中國戲劇出版社, 1983.